

3. 서복전시관(徐福展示館) 개관을 보면서⁴⁾

고대 중국인들은 제주도를 신선의 섬으로 인식했다. 중국에 신선사상이 일어난 것은 전국시대의 일이었고 발해만 일대에서 유포되기 시작했다.

주(周)나라와 연(燕)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바다[발해(渤海) 또는 동해(東海)] 건너에는 삼신산(三神山)이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도라고 생각했다.

제주도는 부상(扶桑·해가 뜨는 동쪽 바다에 있다는 전설 속의 나라. 일본의 대명사가 되기도 한다)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사철 따뜻하

4) 『한라일보』(삼각봉), 2003. 10. 02 (목), 논설위원.

고 기화요초가 나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수만 년에 걸친 화산도였고 그 활동은 11세기 초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바깥사람들에게는 신비의 섬이었고 접근이 어려운 외경(畏敬)의 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옛 문헌에도 제주도를 영주(瀛洲) 또는 동영주(東瀛洲)라 했고 한라산을 영주산(瀛洲山)이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탐라지(耽羅志) 등을 보면 제주도의 고명은 탐라, 탁라(毛羅) 외에 동영주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는 한라산을 세칭 영주산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후기 이후에 간행된 탐라지 등에는 한라산과는 별개로 정의경(旌義境)에 있는 영주산이 나타나지만 그것도 삼신산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택리지(擇里志)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백록(白鹿)의 전설을 볼 수 있고, 방선문(訪仙門)의 전설, 선유담(仙遊潭)의 전설, 은선동(隱仙洞)의 전설 등 신선과 선녀들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는 서불(徐市·일명 서복徐福)의 전설을 빼 버릴 수가 없다. 탐라국왕세기나 조선도교사 등 여러 옛 기록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온 전설임을 알 수 있다.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秦始皇)에게 불로초를 캐어다 바치기 위해서 동남동녀 5백과 백공(百工·여러 기술자)을 거느리고 제주도를 찾아왔다는 전설이다. 그가 처음 도착했던 조천포구에는 조천석(朝天石·조천관 건립공사 때 매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남겼고 정방폭포 암벽에는 서불과지(徐市過之·전분폐수로 지금은 볼 수 없다)를 남긴

것으로 전해져 있다. 또 서귀포(西歸浦)와 조천(朝天)이란 지명이 모두 그의 도래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이 전설의 주인공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 26일 마침내 서북전시관(徐福展示館)을 개관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20세기 말엽인 지난 1980년대부터 서북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서북을 전설의 인물로 보다는 역사의 주역으로 재조명하는 연구 사업이 크게 일어났고 여러 연고지마다 유적복원과 기념축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지상이나 관련 석상에서 여러 차례 그 당위성을 강조한 일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기념관의 탄생을 본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 서귀포시가 이 전시관을 어떻게 기획 관리하고 전략 자원화 하느냐 하는데 있다고 본다. 전시관을 포함하여 정방폭포 일원의 공간이용계획, 전시관 진열전시 및 이용계획, 기념학술과 축제 등 기념사업계획 서북유적을 상품화하는 전략사업 등이 꾸준히 연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원전 3세기 서북집단의 망명사건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족히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자원이 아닐 수 없다.